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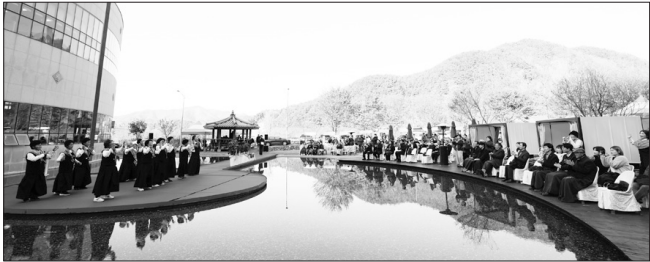
무주군, 산림 치유·관광 기반 구축·지역 인재 양성 등 성과 주목

무주군은 지난 2022년부터 (사)무주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주도로 추진해 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 치유·관광 공동체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산림 치유·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의 공동체를 발굴·육성하고, 활동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립적 성장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다.

김인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산림 치유·관광이 활성화되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공유회가 지난 11월 26일 열렸다.

무주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산림 치유·관광 코디네이터 13명, △테라피·제빵 등 전문과정의 현장 활동가 20명, △리빙랩(학습동아리) 11팀, △미디어 분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10명을 배출했으며, △‘유유자적 아카데미’ 400여 명 수료, △액션그룹 49곳 육성, △‘춘하추동 마을 문화축제’ 37개 마을 지원,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유자적 힐링정원센터’ 및 카페 ‘무심원’ 조성 등 지역 공동체 확대에 주력해 왔다.

한편,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년 무주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는 활동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12개 단체들이 상설 프리마켓을 시범·운영했으며, 코디네이터·리빙랩·로컬크리에이터 등 2백여 명이 참여한 산림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협력의 장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걱정이 컸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마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세계 태권도 품새 담당자 태권도원 모여

WT 국가협회 품새 워크숍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은 ‘2025 WT 국가협회 품새 워크숍(이하, ‘품새 워크숍’)을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품새 워크숍’은 50개국 120명의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대륙연맹 및 국가협회 품새 위원장과 담당자들이 참가해 품새 경기 규칙 교육, 실기 훈련, 토론, 문화 교류의 장 등을 진행한

다.

‘품새 워크숍’에서는 경기 규칙과 체점 교육, 인공지능(AI)을 접목한 품새, 영상 분석 등 세계 품새 경기의 공정성과 국제적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그룹 토의에서는 최신 경기 규칙 공유를 비롯해 실질적인 적용 방안, 각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태권도 품새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군 일대 탐방을 통해 우리 문화와



지역 체험을 하는 등 한국을 알아가는 시간도 마련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은 올해 ‘세계파리태권도 합동캠프’, ‘난민선수 초청연수’, ‘가상 태권도 경기 운영자 자격 과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 활성화와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재인증 획득

장수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한 ‘가족친화 인증’ 심사에서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탄력적 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지난 2017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0년 연장,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다시 자격을 유지하며 제도적 안정성과 운영 성과를 인정 받았다.

이번 재인증은 장수군이 추진해온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된 데 따른 성과다.

특히 장수군은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을 통해 정서적 문화확산하고,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아울러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 임신·출산 공무원을 위한 수유실 운영 등 다양한 가족친화 지원책이 실제 조직 내부에서 정착·활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진안군, 참식품 스마트제조공장 구축…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

진안군과 전북테크노파크는 지난 2일 연장농공단지 내 참식품(진안군 거북비위로3길 38)에서 ‘스마트제조공장(JS2) 혁신활동 프로젝트 추진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연장농공단지 소재 참식품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JS 1단계 완료 후 올해 생산·품질·재고 등 주요 공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JS 2단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공정별 데이터 수집·모니터링 환경을 갖추고 공장 레이아웃과 작업 동선을 재정비했으며, 3층5S 활동과 표준작업서 정비 등을 병행해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또한 식품제조 특성을 고려해 위생·품질관리 절차를 재정비하고, 현장 근로자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설비 활용 능력과 품질 의식을 높였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불량 감소는



물론, 납기 준수율과 고객 대응력 제고 등 전반적인 경영 체질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진안군은 참식품의 스마트제조공장(JS2) 구축 사례를 관내 중소 제조기업, 특히 식품기업에 확산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단계별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을 통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앱 기반 사후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예방과 건강한 일상 유지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앱 기반 사후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며, 지역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춘 식단·영양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신청이 예상보다 많아 주 2회, 총 10회 과정으로 편성했으며, ‘오늘건강’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사후관리를 희망한 주민들이 대상이다.

첫째 주에는 체성분·악력 검사 등 기초 건강검사를 진행해 참여자의 현재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주부터는 근력운동과 영양교육 등 본격적인 건강관리 교육이 이어진다.

교육은 운동지도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참여해,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뿐 아니라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춘 식단·영양 관리까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오늘건강’ 앱을 통한 실시간 건강정보 모니터링이다. 걸음수, 운동량, 식습관 등 일상 데이터가 앱을 통해 수집되며, 보건소는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지속 제공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청 앞 대형 성탄 조형물 점등 행사 열려

무주군의 성탄 조형물 점등 행사가 2일 군청 앞 분수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점등 행사는 무주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민 등 2백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송사철 무주군 기독교연합회장(적상교회 목사)이 전하는 성탄 메시지를 공유하며 트리 점등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청 앞 성탄 트리는 단순한 장식을 넘



어 모두에게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지역에는 아름다움을, 군민과 무주를 찾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따뜻함을 선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2026년 과수원예팀 자체 보조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은 ‘2026년 과수원예팀 자체 보조사업’을 영농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은 농업인이 농한기 중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와 동일하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내년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해 붙절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는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된 농업환경을 반영해 일부 사업을 조정했으며, 시설하우스 보완시설(비닐교체)과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등(추가) 다양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과수·원에 분야의 생산 기반을 보강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도울 계획이다.

군은 총 13개 사업에 약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과수·원에작물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공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가 경영주자 사업예정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태고정 합동 소방훈련 실시

진안군은 2일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용담면에 위치한 목조 문화재인 태고정에서 진안소방서, 전북동부문화유산 돌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 산불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연막단 점화를 통한 화재 발생 상황 재현으로 시작됐으며, 각 참여기관과 현장 인력은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대응, 신고, 대피, 초기진화, 소방차유도, 화재진압 등 단계별 훈련을 시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